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

[현대건설주식회사]

이종수 사장





故정주영 명예회장 흉상 제막식

1947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현대토건사를 모태로 1950년 1월 10일 현대자동차공업사를 합병하여 탄생한 현대건설주식회사(現代建設株式會社)는 올해 창립 59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종합건설회사로 토목, 건축, 플랜트, 전기, 해양 등 건설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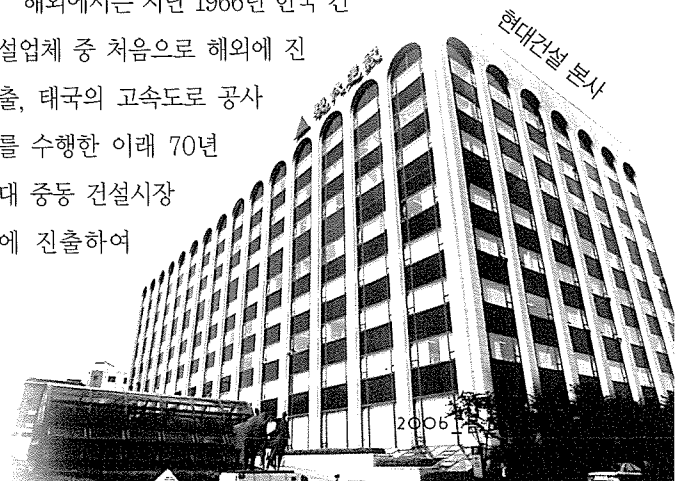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지난 1958년 戰後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시작으로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다목적댐 공사, 항만 공사 등 60년대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기간산업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70년대 초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건설된 국내 원자력발전소 총 18기 중 12기를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국내 원전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원전 시공기술 자립도 100% 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내 건설기술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현대건설은 지난 50여년 간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로 국내의 대표적인 교량, 댐, 도로, 주택은 대부분 시공했을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과 시공능력, 품질을 인정 받아 왔으며 이러한 뛰어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지난 40여년간 국내 최고의 건설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임직원들이 현대건설 59년이 곧 한국건설의 역사라고 자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1966년 한국 건설업체 중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행한 이래 70년대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현대건설-발대식

20세기의 대역사(大役事)라 불리는, 당시 10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역작을 남겼으며 최근에는 이란에서 총 22억달러 규모의 고부가가치 플랜트 공사인 초대형 가스 처리시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중동, 동남아, 미주 등 전세계 47개국에 진출하여 620여 건의 공사를 수행하며 미화 482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수주고를 기록, 세계 건설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건설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회사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왔다.

현대건설의 플랜트사업본부의 국내부문은 발전/환경 파트, 석유화학 파트, 원자력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부문은 석유화학 파트, 발전·담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각 사업분야의 수주·영업 및 시공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해 국내에서 5조2천억원, 해외에서 27억달러로 총 8조원을 수주했다.

중동 지역의 건설붐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8년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저희 현대건설의 수주액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의 플랜트 시장 확대에 힘입어 현대건설은 U.A.E.의 제벨알리 발전소, 이란 올레핀 11차 공사, 쿠웨이트의 에탄 회수 처리시설 공사 등의 대형 공사를 수주하여 해외건설 수주 1위를 차지했으며, 이와 같은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2005년 8월 세계적인 건설전문지인 미국의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 의해 세계 31위의 건설업체(해외 수주 기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플랜트사업본부의 주요 사업분야로는 지역난방용 열원공급시설, 열배관 등을 비롯하여 발전/담수 플랜트, 원자력 플랜트, 석유화학, 각종 산업설비, 소각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관련 설비 등이 있다.

### 지역난방사업 참여 현황

현대건설은 지난 80년대 여의도, 반포, 동부 이촌동



태안 기업도시 선정 기념 시루떡 컷팅

지역에 열공급을 위해 건설된 남서울 지역난방 공사를 시작으로 90년대엔 분당지역에서 지역난방 및 열원공사를 수행했으며 그 이후, 청주 지역난방 및 열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역난방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 왔다.

국내 최초로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지역난방방식을 도입한 서울 강서 지역난방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지역난방 사업인 남서울 지역난방 공사를 통해 현대건설은 지역난방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총 5만여 세대와 100여 개의 빌딩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남서울 지역난방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한국 최초로 열병합발전을 시작한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화력발전소) 측과 여의도측 도강관 시공을 담당하였다.

이어 총 십만여 세대와 560여 개의 빌딩에 91년부터 열을 공급하기 시작한 분당 지역난방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뒤 이어 97년부터 총 사만여 세대와 50여 개의 빌딩에 열을 공급하는 청주 지역난방에 참여하였다. 현대건설은 열생산설비와 열수송관의 시공을 담당하였다.

저희 현대건설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동부건설과 공동으로 설립한 부산정관에너지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시공사로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3만여 세대에 열을 공급하게 될 부산정관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2007년 3월 초기 열공급과 초기 전력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단에너지 중요성이 더해만 가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매진할 것이다.

저희 현대건설은 깨끗하고 편리하며 경제성이 뛰어난 집단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든 임직원은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2006년 3월 주총에서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이종수 사장을 비롯한 현대건설 전 임직원은 한국지역난방협회 회원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